

7-14-201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레위기 3:1-17

말씀제목: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죄없는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

음식제사를 통하여 온갖 불같은 화덕같은 고난과 철판 위에서 오그라들고 바비큐가 될 때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에서 오직 한 분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 자신을 믿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셔서 한 마리 소처럼, 한 마리 양처럼, 한 마리 염소처럼 피흘리게 하셔서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롬 5:6-8)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접함으로써 성령을 받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 1:29)고 유대인들에게 외쳐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2-14)

사도 바울도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러진 것이라.”(히 10:3-8)

세상에 나타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온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실 것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롬 5:1-5)

예수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막 12:31)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자신을 믿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화평을 누리도록 해야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18-21)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화평, 즉 “샬롬”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화덕같은 고난과 철판같은 고난들을 가운데서도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처럼 화목제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후 5:8-10)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계 22:12-13)

아멘! 할렐루야!